

2023년 8월 13일(주일) 제1643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2023년 실천하는 이웃사랑·교회사랑 바자회 축제"

2023.09.22(금)-23(토)

당회는 손달익 위임목사의 인도로 지난 8월 9일(수)에 8월 정기당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회는 "2023년 실천하는 이웃사랑·교회사랑 바자회 축제를 9.22.(금)-23(토)에 개최합니다.

이번 바자 수익금은 선교후원,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수해지역 지원, 인근 경찰서(파출

소) 지원, 서울지역 아동센터 지원, 국내 농어촌 교회 지원, 불우한 이웃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작년에 이어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웃의 등대되고 나침반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바자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 서울교회 바자 조직>

- 지도목사: 조원영 목사
- 차장: 장창수 안수집사
- 기획부장: 장상국 안수집사
- 재정부장: 오명걸 안수집사
- 판매관리부장: 이경손 안수집사
- 섭외특판부장: 최근우 집사
- 중고장터부장: 손태현 안수집사
- 홍보부장: 김영희1 안수집사
- 시설관리부장: 정수환 안수집사
- 차량관리부장: 임우택 안수집사
- 식당관리부장: 오가연 권사
- 본부장: 김광태 장로

2023년 가을 서울성경대학 및 열린프로그램

* 성경대학

강좌	요일 및 시간	기간	강사 / 담당	장소
에스라·느헤미야	화, 오전10:30-12:00	9.5-10.31(8주)	최종국 전도사	602호
신약의 파노라마	금, 오전10:30-12:00	9.8-11.3(8주)	장석남 목사	603호

* 열린 프로그램

강좌	요일 및 시간	기간	강사 / 담당	장소
아기학교	주일, 오후 2:00-3:10	9.10-11.12(10주)	강남희 전도사	706호
살롬경로대학	목, 오전 10:30-13:30	9.7-11.9(10주)	박미라 전도사	101호

<아기학교>

1. 목적

서울교회 아기학교는 유아 성경 말씀을 오감으로 경험하여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돕고, 엄마들의 3부 예배 참여를 돕기 위해 진행됩니다. 점차 확장하여 지역사회 전도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2. 일시: 9월 10일(주)-11월 12일(주) 10주
매 주일 오후 2시-3시

3. 장소: 706호(유아부실)

4. 대상: 3-7세(2016-2021년생 유아)

5. 교사: 유미영 권사 박만옥 집사

6. 주제: 센싱 교구로 배우는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

7. 커리큘럼

주	일자	주제
1주	9월 10일	입학식/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았어요
2주	9월 17일	말씀을 따라 갔어요
3주	9월 24일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4주	10월 1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5주	10월 8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6주	10월 15일	하나님의 사랑을 맞이했어요
7주	10월 22일	사라가 웃었어요
8주	10월 29일	이삭이 태어났어요
9주	11월 5일	가족이 많아졌어요
10주	11월 12일	수료식/아브라함 가족 이야기

* 전도훈련 프로그램

강좌	요일 및 시간	기간	강사 / 담당	장소
전도폭발훈련	수, 오후 2:30-4:30	9.6-11.22(12주)	장석남 목사	603호

신앙강좌부 개강

오늘 802호, 양정호 협동목사

여름방학을 가졌던 신앙강좌부(부장:김동진1 안수집사)가 802호에서 오늘 개강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영동시찰회

8월 24일(목) 오전 10시 서울교회

서울강남노회 제73회 정기회를 위한 영동시찰회가 8월 24일(목) 오전 10시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영동시찰회 소속 목사회원 및 장로총대가 모일 예정입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예준 김중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이정환 김예준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국가의 영광과 수치

(대하 26:1-8)



손달익 위임목사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우리나라는 국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우리나라의 역사는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었고 극심한 경제난으로 외국의 원조에 의지해야 했으며, 교회들도 외국자본으로 학교를 세우고 연합기관을 운영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빠른 시간 동안에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문화적 선진화를 모두 이루어내는 민족적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현재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걱정스럽

고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국가 정체성이 손상되고,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우리 사회의 윤리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시대를 책임진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심한 실망감과 배신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선진국이란 경제수준이 높은 것이 아닌 선진화된 의식 수준을 가진 국민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존경받는 국가의 모습을 갖춘 새로운 광복으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앞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웃시야 왕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지는 북을 누렸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병 환자가 되어 권력에서도 축출되어 별궁에 거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가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국가사회에 끼쳐야 하는 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 웃시야의 신앙

웃시야는 제12대 유다 왕으로 16세 때 즉위하여 무려 52년간을 재위하면서 나라의 큰 발전을 이루었고 많은 치적을 남긴 왕이었습니다. 그의 치적을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먼저는 웃시야 왕은 주변을 평정했습니다. 그는 주변 국가들의 잦은 침략과 약탈을 멈추게 하였고 주변 지역들을 평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솔로몬 시대 이후 중단되었던 조공을 재개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심각한 식량문제 해결을 시도했습니다. 농업을 장려하고 식량생산에 심혈을 기울여 식량 자급시대를 열었습니다.(9, 10절) 또한 무기 산업을 발전시켜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했습니다.(14절)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세 어린 왕이 즉위해서 이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무기 산업을 발전시키는 등의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낸 저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웃시야 왕이 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② 스가랴 선지자의 영적 지도를 잘 받아들였고, ③ 항상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합니다.(4, 5절) 웃시야 왕이 그의 시대를 번성하는 견고한 시대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성실한 신앙생활이 근본이었던 것입니다. 드러나는 모든 현상들은 그 바탕에 흐르는 정신에 있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최고의 문제는 영적 자산, 정신 자산의 빈곤입니다. 모든 것에 천박한 물질주의가 난무하고, 모든 분야에서 권력에 대한 욕망 논리가 작동합니다. 국민 전체가 지나치게 공격적이며 필요 이상으로 독하고 거친 표현을 일삼습니다. 공존과 일치의 가치가 사라지고 독점주의가 난무합니다. 이런 정신으로는 부흥하는 시대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종교적 패권을 추구하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근본정신인 사랑, 정의, 평등, 성실 등의 가치가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정신에서 역사를 창조해 내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2. 마음이 교만하여

권력이 절정에 이르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여 안팎에서 웃시야를 향한 칭송이 자자할 때 그는 마음이 교만해지는 시험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에게 금지되었던 마지막 한 가지인 종교적 영역까지도 장악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를 허락하실 때 모든 국가들처럼 왕에게 절대 권력을 주셨지만 한계는 매우 분명하게 정하셨습니다. 때문에 다윗도 솔로몬도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은 제사장들에게 전권을 주어 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웃시야는 이 일도 자신이 친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내가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절대 권력을 가진 자신이 종교 권력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여겼습니다.(16절) 성경은 그의 이런 행동을 '그가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범죄했다'고 말씀합니다.

웃시야는 말리는 제사장들을 뿌리치고 분향을 시도했고, 집요하게 반대하는 제사장들에게 분노할 때 그에게 나병이 생겼습니다. 52년을 왕으로 재위하면서 그의 치적은 다윗에 버금가는 빛나는 업적이었지만 마지막의 이 실수는 그 개인에게도 민족 역사에도 치명적 결함이 되었습니다.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웃시야 왕의 삶 속에 스며든 교만이 무엇입니까?

1) 내가 했다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의 시대가 빛나는 역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며(5절),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기 때문(15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해지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일 뿐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을 뿐입니다.

2) 자기 생각을 절대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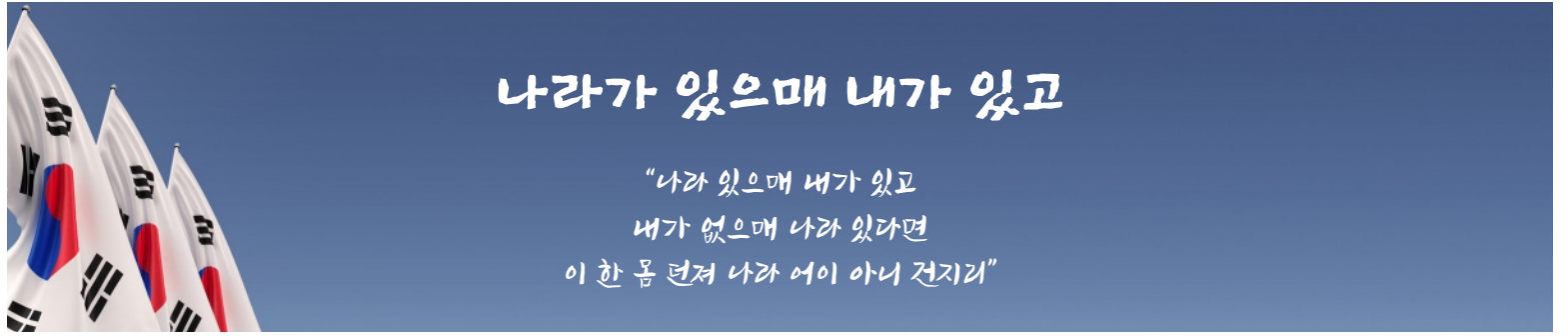
웃시야는 제사장 80여 명이 성전에 제사하러 가는 행위를 간곡히 만류해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아집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만 했습니다. 권력자들의 최대 약점은 자기 실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직과 겸손으로 반성과 회개가 있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십니다.

3) 자기 영광만 구합니다

자기 영광을 무리하게 추구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웃시야 왕이 자기 권력과 영광을 과시하려 성전 제사까지 직접 감당하려 했다가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고 분노하게 했습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자랑과 기쁨을 준 것이 아니라 수치와 슬픔이 되었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국가의 존엄을 지키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힘을 과시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정의를 파괴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온전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끝없는 비난과 누명과 배신과 버리심을 당하셨으나 분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겸손히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셨습니다. 풍요로운 내적 충만과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새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국가 지도자는
국가의 존엄을 지키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힘을 과시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정의를 파괴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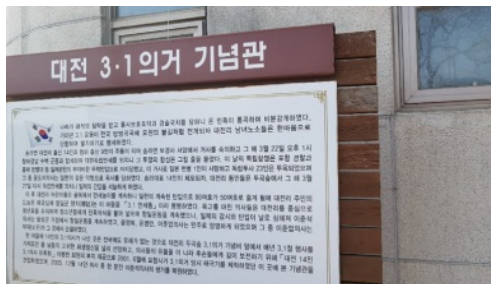
포항시 북구 송라면에서 태어나 1919년 3월 22일 동지들과 청하면 덕성 장터 3.1만세 운동을 주도한 이준석(1896.5.7-1955.6.20)지사의 묘비명에는 그의 삶이 잘 함축되어 있다. 이준석 지사는 우리 교회 이인숙 권사(1교구)의 할아버지이다.

이준석 지사의 부친이신 이익호 선생은 구한말 일찍이 상경해 배재학당에서 수학한 후 민영환 대감 휘하에서 궁내부 주사로 공직생활을 했다. 그러나 을사늑약 부당함을 호소하며 1905년 민 대감이 자결하자 그도 고향 송라면으로 낙향해 대전리교회, 유계리교회, 청하교회를 세우고, 청하향교 장의와 청하면장을 역임하며 계몽활동을 펼쳐나갔다. 그러던 중 3·1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 이익호 선생은 콜레라로 추정되는 병으로 45세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그 뜻을 장남 이준석과 3남 이준업에게 계승되었다. 이준석 지사는 1919년 14명의 동지들과 함께 청하·송라 지역 만세 운동을 주도하시며 직접 만든 대·소형 태극기를 들고 3월 22일 청하장터에서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운동을 하던 중 긴급 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혹독한 옥고를 치루었다. 출소 후에는 송라청년회 등을 맡으며 지역 계몽 활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이어가려 했지만, 일본 경찰의 감시와 견제가 심해지자 결국 1922-23년경 대구로 피신했다. 이곳에서도 이준석 지사는 옛장수와 이발사를 가장해 지역 청년들에게 독립의식 고취 활동을 계속 펼쳤나갔다. 이준석 지사의 이러한 공을 기려 1983년에는 대통령 표창이 추서됐고, 1990년에 다시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그에 더해 이준석 지사의 동생, 이준업의 일생은 더욱 처절하고 치열했다. 형을 도와 만세



고 이준석 지사



포항 송라 대전리 3.1운동 기념관

운동을 한 혐의로 8개월간 옥고를 치른 후 만주로 망명해 항일독립운동 단체 신민부에 참여해 독립운동을 계속하다 또다시 체포, 혹독한 고문을 받고 순절했는데 그의 아들 이희모도 만주에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독립

군에 입대해 일본군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면서 2대(代)에 걸쳐 불꽃처럼 독립운동에 투신했지만 안타깝게도 대가 끊기고 말았다.

이준석 지사의 후손들은 이러한 할아버지와 동지들의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영원히 기리고자 선조의 생가 터를 기증, '대전 3.1의거 기념관'이 지난 2001년께 문을 열었으며 여기에는 대전리 14인 의사의 유품과 판결문, 영정 등 후손들이 소중하게 간직해 온 유품 100여 점과 이준석 지사가 사용하던 옛가위와 이발 도구들도 전시되어 있다. 이준석 지사 가문의 가훈은 '경천애인(敬天愛人)',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백성을 사랑하자'이다. 불행히도 이준석 지사의 아들 이영모 씨는 머리는 뛰어났으나 선친이 독립운동에 뛰어들면서 가세가 기울어 충분한 공부는 하지 못했지만, 전문직인 도청 기술직 공무원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이러한 가풍은 이 지사의 손자·손녀 대에 와서 마침내 활짝 꽃을 피우며 6남매 모두가 각고의 노력으로 각자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일제의 치하에서도 이 땅의 곳곳에서 이준석, 이준업과 같은 열사들이 목숨 바쳐 치열하게 항일투쟁을 이어가며 조국을 지켰기에 세워진 나라이다. 비록 이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숭고한 피 위에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되었다. 광복절 78주년을 맞으며 우리 대한민국은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며 거짓 없이 자신의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덧입고 쓰임 받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정리:허숙 권사(편집부)



지난주 우리 교회는...

지난주 2부 예배 시간에 유아 교회 첫 출석 축복기도가 있었습니다.

- 전중희(남) 아기
- 부모:4교구 전경배 성도·김연경 집사 (4교구 김규태 안수집사·박미혜 권사 외손자)

실천하는 이웃사랑·교회사랑 바자 축제!



김광태 장로
(2023 바자 위원장)

“2023년 실천하는 이웃사랑·교회 사랑 바자회 축제”가 다음 달 9월 22 (금)-23(토) 양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바자위원회에서는 금년 바자회의 목표로 지금까지 타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서울교회의 모습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많은 주변 이웃들이 함께 참여하여 교제하는 바자회가 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은혜롭게 진행되었던 바자회의 장점을 살려 축

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교회학교 연합수련회와 전교인 한마음축제를 통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반갑게 교제하는 전 교인의 하나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서울교회가 지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이웃과 나누는 바자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자회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설명 드

립니다.

1. 실시 일자: 2023.09.22(금)-23(토)
2. 실천사항
 - * 세계선교지원:(인도)선교후원,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 * 이웃사랑 실천:수해지역 지원, 인근 경찰서(파출소) 지원, 서울지역 아동센터 지원, 국내 농어촌 교회 지원, 기타 불우한 이웃 지원

구 분	내역	비고	
바 자 회 전	사랑의 온도계	교인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받은 금액을 온도계로 표시	2층 본당 앞에 온도계 형상 설치
	희망 판매 장터	기증품에 대하여 구입 희망하는 교인이 구입 희망 단가를 써내면 가장 높게 써낸 교인에게 판매. (본 바자회 기간에는 중고장터로 전환)	8층 식당 단상에 물품 전시 및 판매
	미리 바자	권사회 주관으로 바자회 실시전 주간에 신청을 받아 주일에 전달 판매.	불고기,젓갈, 반찬류 등
	온라인 판매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여 바자회 현장에 올 수 없는 교인들을 위해 판매	청년층 위주로 진행
교구별 판매	교구별로 판매품목 8층 먹거리 메뉴를 신청 받아 바자 당일 판매	총괄 및 조정-바자회 본부	

교회학교 연합수련회를 마치며



초등부 교회학교 연합수련회 한줄 소감

김동현 선생님 - 그 여름의 물놀이는 역시나 시원했고, 우리들의 기도는 여전히 뜨거웠다!
조상희 선생님 - 초등부와 서울교회에 부여 주신 은혜와 치유, 회복이 있는 수련회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겨울수련회를 또 기대하게 하심 영광 올려드립니다 ^^
김하윤 - 초등부만 가는게 아니라 다른 부서 동생들, 언니 오빠들과 같이 놀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트루바콘서트 좋았어요!)
오승아 - 모든 교인들과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함께 하며 다양한 활동들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고 이번 수련회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는 좋은 경험을 얻은 것 같아 기쁩니다.
임대중 선생님 -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

최지성 - 다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하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준 선생님 전도사님 그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도도 많이해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유하연: 너무×100 재미있었고, 수련회 스케일이 커서 좋았어요. 다음 수련회도 연합으로 가면 좋겠어요.
오유민 - 오랜만에 밤을 새우며 놀아서 즐거웠고, 물이 깨끗하면 좋겠습니다.
임준우 - 활기차고 즐거워서 좋았습니다.
김하준: 푸드트럭과 식당 음식이 너무 맛있었고, 첫날에 설레임이 신의 한수였다. 그리고 원래 성경학교들은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이번엔 여는 예배, 저녁에 한 예배, 그리고 닫는

예배만 있어서 더 시간을 잘 썼다.
이주호 - 재미있었겠다.
김연우 - 못 가서 아쉬웠다.
윤지연 선생님 - 이렇게 여름수련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은혜로운 수련회였습니다:-)
임준우 - 올 여름수련회의 가장 큰 축복은 건우, 선우, 찬수, 아벨 형들을 만난 것이고 가장 큰 고통은 그들과 헤어진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감사드려요!!
김을 - 수영장 물이 미지근하긴 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해서 즐거웠습니다.
김하민 - 너무 재미있었어요. 다만 푸드트럭에 시원한 음식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05인 사건과 기독교



아카시 모토지로
(明石元二郎)



필립 L. 질레트(L. Gillett)



1911년 공판정으로 끌려가는 애국지사들(출처:대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선우훈



선우훈을 수배하기 위하여 1927년 일제의 형사과에서 작성한 카드(출처:대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일제는 1910년 8월 한국을 강제병합하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헌병이 경찰 업무를 장악하는 헌병경찰제를 실시하였다. 막대한 권력이 주어진 초대 헌병사령관은 아카시 모토지로(明石元二郎)였다. 그는 1900년대 초반 러시아 주재공사관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제정 러시아의 비밀경찰제도를 눈여겨보았다가 이를 헌병경찰제에 활용하였다. 그리고 정보 조작과 고문으로 민족운동가를 탄압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105인 사건’이다.

일제는 1910년 11월에 발생한 안악사건(안명근이 서간도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집하다가 검거된 사건)을 계기로 서북지방에 민족운동가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카시는 1910년 7월 ‘이제 폭도봉기의 시기는 지나갔고 비밀결사를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안악사건으로 그 가능성을 확실히 발견한 셈이었다. 일제는 서북지방의 민족운동가를 일소할 계획을 세웠다. 주요 타겟은 기독교 민족지도자와 선교사였다.

1911년 10월 중순부터 기독교인들이 많은 서울, 평양, 선천 같은 도시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체포되기 시작했다. 약 700명의 사람이 구속되었고 이들 중 123명(기독교인 82명)이 고문에 의한 허위진술만으로 기소되었다. 혐의는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 암살 모의였다. 일제는 이 조작사건에 선교사를 끼워 넣었다. 암살이 성공했을 때 그 소식을 즉각 해외에 알리기 위해 선교사가 모의과 정부터 참여하였다는 낭설이었다.

일제가 24명의 선교사를 이 조작사건에 연루한 것은 1910년부터 미일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식민지배를 놓고 경쟁하기 시작했고

가까운 미래에 미일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양 국가에서 나오고 있었다. 당연히 일제는 미국인이 한반도 내에 체류하는 것에 조급씩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곤란에 처했다는 보고가 미국으로 갔지만 미국 북장로회 선교본부의 총무 브라운(Arthur J. Brown)은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그는 일제가 단순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 본격적인 탄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선교사가 체포나 입건되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장의 판단은 본국과 달랐다. YMCA 총무로 한국에 와 있던 질레트(L. Gillett)는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중국인 친구에게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이것이 상해의 The China Press에 공개되면서 이 사건이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미국과 영국의 언론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한국에 특파원이 파견되어 재판을 취재하자 일제는 당황하였다. “문명국”을 표방하던 일제는 세계 여론 악화에 심한 부담감을 느꼈다.

1심에서 123명의 기소자 중에 105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이 105인 사건이라 불리는 이유이다. 그러나 법정에서 피의자들의 용기 있는 진술로 사건의 조작성이 드러났다. 판결은 세계 언론의 비난을 받았다. 그 결과 2심은 105명 중 99명을 무죄로 석방하고 6명에게만 실형을 선고하면서 혐의를 총독암살 “실행단계의 미수”에서 “준비단계의 미수”로 변경하였다. 이는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1913년 10월의 최종 판결 후 수감되었던 6인은 1915년 2월 특사로 전원 석방되었다.

기소자 전원이 풀려나는 데에는 미국 북장로회 선교본부의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 사

건 초기 선교본부는 일본 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선교사들을 정중하고 우호적으로 대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수준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사건의 조작과 고문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는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는 The Korean Conspiracy Case를 작성하여 미국과 아시아 지역의 신문에 기고하면서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미국 정부도 막후에서 일제에 이 사건을 기독교 박해로 보고 있음을 알리는 한편 선교본부는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등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결국 일본 수상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는 조선총독에게 “금후부터는 선한 목적과 적절하게 활동하는 조선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특별한 친절과 조력의 정책을 펼 것”을 지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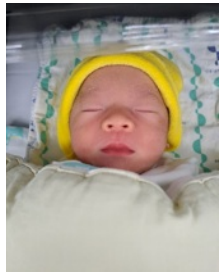
105인 사건을 계기로 한일강제병합시기 주류 교회와 선교사들이 백만인구령운동을 추진하면서 선교사와 기독교 민족운동가 사이에 생겨나고 있던 불신과 불만이 누그러들었다. 교회가 민족운동가를 일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큰 성과였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기독교는 역시 고통과 수난을 통해 신앙의 성숙을 이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5인 사건이 기독교인을 노린 조작 사건임을 폭로한 선우훈은 조사 과정에서 고문과 회유를 받자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다.

“에에 개심하는 놈은 살려내어서,
고안대작 부귀영화 누리게 한다.
에에 개심할 수 없는 내 몸이니,
행장 아래 결박지고 끊어앉아서,
쳐 죽이는 모습매를 기다립니다.
스데만이 바라보던 영원 저 하늘,
내 주 예수 서신 것은 바라보면서,
내 영혼은 받으소서 기도합니다.”

동정

- 입대: 2교구 구민우 성도 (구성현·장형심 집사 아들) 8월 7일 입대

득남



- 7교구
최영은 성도(중등부지휘자)·김진수 성도
김예준 아기

식사 제공

- 이신애 권사·김재중 안수집사 (아버지 이응선 원로장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수박 제공

- 3교구 전광영 은퇴안수집사·김인숙 권사(범사에 감사하며)

열린프로그램 여름학기 프로그램

구분	요일	시간	과정	장소	강사
클래식기타합주	주일	12:40-	10주	505	장윤식 집사
통기타	주일	12:40-	10주	605	박민서 집사
	토	11:00-	10주	505	김상윤 선생
베이스기타	토	12:20-	10주	505	
드럼	토	11:00-	10주	601	한도연 선생
색소폰	토	14:00- (90분)	5회	505	최명아 선생
찾아가는힐링연기	토	토 12:00-(120분)	5주	701	박재현 배우
말씀(말씀안에 성장성극)	주일	10:00-	10회	505	
핸드벨	주일	14:30-	10주	402	송재월 권사

2023 성경암송대회



2023년 성경암송대회 범위와 일자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1.11(토) 일반부 본선
11.12(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9장-16장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3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8월14일	월	렘 13-16	
8월15일	화	렘 17-20	
8월16일	수	렘 21-23	
8월17일	목	렘 24-27	
8월18일	금	렘 28-31	
8월19일	토	렘 32-34	
8월20일	주일	렘 35-38	

이름:

일 자	요일	1년2독	확인
8월14일	월	삼상 12-17	
8월15일	화	삼상 18-23	
8월16일	수	삼상 24-31	
8월17일	목	삼하 1-6	
8월18일	금	삼하 7-13	
8월19일	토	삼하 14-19	
8월20일	주일	삼하 20-24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외세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애국하는 한국교회의 영성을 잘 이어가는 성도 되게 하소서.
2.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서울교회 되도록 부흥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
3. 복음화된 통일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태풍피해 지역에 신속한 복구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전쟁과 가난, 폭력과 죄악으로 고통받는 곳에 주님의 평화와 치유가 임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 ◇ 전도사
박미라 최종국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 시무장로
이계홍 오치열 안인호 최형열
-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재현 김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어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